

사측의 교섭해태 투쟁으로 돌파하자

KT그룹노조 대표자회의 “사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을 시 교섭중단 및 파업수순 밟을 것”



▶ 노동조합은 사측의 상식이하 교섭수준에 분노하면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사측을 질타했다.

지난 8월 10일부터 시작된 2006년 단체 교섭이 아무런 진척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사측이 경영상황 악화, 시장환경의 문제 등을 되풀이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을 무시하고 우롱하면서 단체협약과 노동법을 위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과연 사측의 교섭을 할 의지

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교섭을 해태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3면)

지난 17일 본교섭에서는 “정년 58세라고 해서 누구든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막말까지도 했다. 또 같은 날 “IMF이후 매년

200명정도 신규인력 충원하고 있는데 이들이 회사의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주력군”이라면서 3만2천 조합원을 분열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직원들은 KT에서 노력하는 대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경영진들이 직원을 보는 시각을 극

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사측은 “작년 임금인상 이후로 오히려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준고령자 임금조정과 성과연동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년58세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막말하던 사측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동을 통한 임금삭감까지 노린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법과 노사합의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보상 운운하는 사측의 파렴치함을 경고하고 일말의 책임감도 가지지 않는 경영진에 대해 분노했다.

안전상정 이후 설치된 실무교섭에서도 이 같은 사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실무교섭은 본교섭보다 구체적이며 원활한 의견접근을 보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만 사측은 경영악화만 운운할 뿐이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측에 임금삭감이라는 카드를 내보이면서 어차구니 없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

사실 노동조합의 기본급 3%인상 요구는 물가인상분만을 반영한 것일 뿐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또한 복지금 출연도 기합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사측이 성실교섭에 임하지 않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태도를 예극하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지난 1차 본교섭 석상에서 지체식위원장이 “현재 KT의

노사관계가 10년은 후퇴했다”면서 “노동조합이 낡은 노사관계 청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측은 여론조작과 KBN방송 날조 등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측제인 전진대회도 조합원들의 참석을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KT 사상 초유의 경찰력 동원 요청까지 있었다”면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사측의 태도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며 사측의 노사관을 개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단협에서 이러한 오점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임금인상 등 KT의 대법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사측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측의 자세변화가 없다면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이 그것이다. 지난 29일 열린 KT그룹노동조합대표자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합의했다. 대표자들은 9월 한달동안 최대한 교섭에 임하되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추석이 끝나는 즉시 교섭중단과 기자회견, 총파업 찬반투표, 조정신청, 준법투쟁 등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한편, 2006년 단체교섭은 본교섭 2차회, 임금실무 2차4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 회 4회, 노사관계개선협의회 3회를 열었다.

한미FTA원정단 파견
1차 원정단보다
규모는 더늘어날 듯



한미FTA저지를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서부도시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FTA 3차협상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한다.

지난 6월 워싱턴 1차협상 때처럼 이번에도 방미원정투쟁 때문에 협상에 방해가 될까봐 장소를 변경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시애틀로 향할 원정투쟁단의 규모는 지난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전농의 문경식 의장 등이 미국행을 준비중이다. 범국민 관계자는 “현재 미국행이 확정된 인원이 60여명이고,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현지에서 결집하는 동포들까지 합치면 100여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문제도 지난번처럼 까다롭지만은 않다. 미국비자가 나오지 않아 미국행 인원이 크게 줄었던 1차협상 때와 달리 이번에는 비자 거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미FTA 3차협상 원정투쟁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9월 4일 비행기로 출발해 당일부터 현지 노동 단체들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협상시작일인 6일 오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양국 노동자 공동 개막집회, 한미FTA저지 촛불문화제, 행진, 파켓팅, 국제포럼, 산보일배, 한미FTA 장례식 등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쉬지않고 다양한 행동을 벌인다.

대부분의 집회는 협상 장소인 시애틀 시내 컨벤션 센터 주변에서 벌어질 예정이며, 집회신고까지 이미 마친 상태라고 범국민 관계자는 전했다.

3차협상이 열리는 시애틀은 크지 않은 도시지만, 다양한 이슈와 독특한 운동 경험을 가진 곳이다. 99년 WTO 3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대규모 집회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91년 걸프전 당시에도 거리점거 시위, 통조림공장 필리핀 노동자 파업 사건 등이 벌어져 바 있다.

범국민은 이번엔 시애틀 현지 운동단체들과의 공동행동 및 토론회를 통해 미국 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애틀의 사회운동 단체들도 한국의 사회운동에 관심이 높지만, 지식은 적은 편이어서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향후 국제연대를 위한 기반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통신부문에 타산업을 위한 희생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기술선택의 자율 보장 ▲지배적 사업자 의무조항 폐지 ▲해저케이블 육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기 도래하는 개인연금저축(신탁) 관련 질의 응답

만기의 의미

질문: 개인연금저축 만기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1. 금융사와 최초 가입시에 약정한 연금개시연령(55세, 60세 등)부터 매년 약정기간 동안 일정액의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자격)이 충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또한 연금저축 납입 의무기한이 종료되고 회사 지원금 월 5만원 지원기한도 만료됩니다

3. 아울러 지금까지 받았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납입월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가능)

내 개인연금 만기 알아보기

질문: 내가 어떤 금융사에 언제 가입해서 언제 만료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사시스템(insa.kt.co.kr)/급여/계좌관리를 조회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시 확인사항

질문: 개인연금저축 만기가 되면 어떤 조치가 필요 한가요?

1. 우선 가입 금융사 인터넷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그간 운용수익률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운용수익률

- 일시금으로 환급시 예상환급액(세전/세후 환급액)

- 연금으로 받음시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연금액

2. 가입금융사, 연금상품 특성, 그간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연금 개시전에 일시금 환급해서 목돈을 다른 투자방법으로 운용할 지는 본인 판단

(▶ 4면에 계속)



온갖 억측만 부리는 사측은 각오하라!

사측은 경영상황 악화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교섭을 해태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로 약속한 복지금도 출연하지 않고 노사신뢰를 이어가려는 낯두꺼운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지금까지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파렴치함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2006년 단체교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노동조합요구	사측입장
임금인상: 기본급 3% +세후 당기순이익의 성과배분(20%)	임금삭감
연금저축 가입: 매월 10만원 지원	불가
복지기금출연: 세전당기순이익의 5% (650억), 단체보험(18억), 기념품비(76억)	복지기금 200억 출연, 단체보험(18억), 기념품비 76억 연내 출연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 대부한도 3천만원, 10년 이내 상환, 이자율 3.8%	대부한도1천만원, 5년 상환, 이자율 4.5%
해고자 전원 복지	불가
복지회관 건립기금 출연: 세후 당기순이익의 1%	불가

8·15 민주노총 결의대회

통일선봉대원조직국장 4명 구릿빛 피부속 열정은 넘쳐나

8월 15일 광화문에서 고 하준근 열사 정신계승, 경찰살인 책임자 처벌 및 8.15 자주통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조준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은 8.15다. 기뻐해야 할 날인데 아직까지 한이 맺히고 울분이 맺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맛아 죽은 하준근 열사가 있는데 때려죽인 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죽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한다”며 분노했다. 이어 “80만 명의 결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자존심이 걸린 투쟁이다. 민주노총의 자랑스런 깃발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합쳐서 투쟁하자”고 밝혔다. 전농 문경식 의장은 “지난 겨울 농민 2분이 맞아죽었는데, 저들은 넘어져서 죽었다고 우겼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경찰청장을 끌어내렸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도 받았다. 경찰이 달라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바뀌었다.”며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농민과 노동자들이 왜 죽어야 하나? 잘못된 노동, 농업 정책 때문이지

않는가?”라며 하준근 동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농민들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7기 통일선봉대 윤택근 대장은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저지>전국순회투쟁을 보고하며, “특히 활동기간 동안 경찰의 폭력에 수많은 아픔을 겪었다며, 지긋지긋한 경찰 폭력 투쟁을 끝내자”며 소리높여 외쳤다.

이어 통일연대, 민중연대, 평택범대위가 공동주최하는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저지! 전쟁을 부르는 대북제재 반대! ‘8.15자주평화범국민대회’가 개최됐다.

한편, 8박9일 동안 통일선봉대원으로 투쟁현장에 결합해 활동한 노동조합의 서봉원(전남), 서윤수(충남), 김유정(충북), 전형집(강원) 국장은 구릿빛 피부로 물들어 있었다. 하루 3~4시간의 수면밖에 취하지 못하고 연일 팽팽이 내리쬐는 날씨로 인해 육체적 피로는 극에 달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었다. 교섭으로 잠시



▶ 8월 15일까지 8박9일의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장기투쟁사업장과 연대투쟁을 펼친 민주노총 자주통일 선봉대.

이탈했다가 재결합한 김배정 조직2국장은 마침 광화문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비가 그리웠다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류준용 조직처장을 비롯한 조직처 간부들은 14일 2006 자주통일 전야제가 열리는

연세대를 방문 통일선봉대로 활동했던 지방 조직국장들을 격려하고 “조합활동에 있어서도 이번 통일선봉대 활동과 같이 열정과 조합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행군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ILO 아태지역 총회

ILO “한국 결사의 자유보장하라”

제 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8월 29일 부산 컨벤션센터 벅스코에서 9월 1일까지 나흘간의 진행됐다.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40여개국 노동장관 및 노사정 대표단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노동기본권, 적절한 소득 및 사회 보장 혜택 등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ILO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두 가지의 보고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본회의에서는 △생산성과 고용 증진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주노동자 보호 △선진화된 노동시장 행정 등 4가지의 핵심 주제를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아태지역총회가 이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동시에 후진적인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정부와 자본 역시 입으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해서는 안될 것이며, ILO아태지역총회를 개최한 정부로서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을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아태지역은 세계 인구 60%가 거주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공정한 분배, 실업 및 임금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며 “이번 총회의 주제는 경제발전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고용’으로 돌아가는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대표자와 지역본부장 등 21명이 개막식에 참가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비정규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ILO의 권고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관하고 ILO노동자그룹이 주최한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벅스코에서 개최됐다.



개최되는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행사가 벌어지기는 ILO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노동계 대표 100여명과 양대노총 소속의 노동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4시간여 동안 열린 토론회가 전개되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의 노동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연이 시작되어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다.

ILO 사무처장 카리 타피올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한국이 지켜 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ILO 감독기구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업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우리는 행자부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것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명확하게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해서도 법적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폭력사태에 대해서 노조 탓으로 몰고 가니까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노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안나 비온디 ILO 노동자그룹 사무국장은 “우리는 지난주 한국노동 상황에 대한 진실조사 작업을 했다. 한국이 ILO 관계자들을 초청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ILO 총회에서는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 하다가도 자력으로 돌아가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정부를 질타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 노동자그룹에 이번 회의를 제의했을 때 이런 회의를 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공무원, 건설노동자, 특수고용 및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탄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주노동자 토론의 민주노총 대표로 안와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를 선정했는데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 명단에서 뺐다.”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끈끈한 동지에 더욱 절절해져”

처음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전처럼 도보로 국토순례를 하는 줄 알고 우리 강산을 돌면서 통일을 위해 국민에게 알릴 생각으로 참여했다.

막상 본대오에 합류하여 보니 “한미FTA 저지”,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전국의 단위노조 투쟁사업장과 미군기지 앞 투쟁을 전개했다. 평균 35~36도를 육박하는 기온에 아스팔트 열기는 50도에 가까운 정도로 뜨겁게 느껴졌다. 말 그대로 달걀을 깨뜨려 놓으면 익을 것 같은 아스팔트에서의 8박9일은 자신과의 투쟁이었다.

변변히 먹지도 씻지도 못해 변비로 고생을 해야 했고 몸에서는 땀내가 났다. 함께한 동지들은 진직투쟁 과정에서 전경의 곤봉과 방패에 치아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러한 아픔을 견디면서 통일 선봉대는 국민에게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알렸다.

왜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야 하는지 또한 자주통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같이 흘린 땀의 양만큼 함께한 선봉대들과 동지에는 더욱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자주통일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겨본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함께해 준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전형집 강원지방본부 조직국장

“치열한 투쟁속에 통일의 열정느껴”

통일 선봉대에 대해 사전 준비없이 참가해 처음엔 우리조합과의 정서적 이견과 통일에 대한 행사보다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행사에 치우치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시 새벽까지의 일정이 원망스러웠지만 스스로 함께 하면서 고생을 기쁨으로 만드는 중요한 깨달음을 함께한 동지에게 배운 것은 이번 행사참여의 최대 수확이었다.

불볕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통일에 대한 염원과 노동자적 삶을 위한 열정으로 다져진 동지애를 확인한 8박9일동안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을 돌며 힘을 실어주고 그 사정을 타 사업장에 전파하면서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면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중소기업 노동자의 어려운 투쟁상황, 집단협력 단위 사업장 지원 투쟁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가 겪고 있는 정권과 자본가들의 탄압에 대항하여 치열한 투쟁의 절박함과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민주노총과 각급 연맹, 단위사업장 모두가 연대하여 투쟁하고 함께 행동함으로써 노동자적 동질감을 확보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한미FTA를 저지하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열정으로 힘을 하나로 뭉치게 됨은 자랑스런 조국통일에 확실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윤수 충남지방본부 조직국장

“연대의 성과를 보았을 때 보람”

지난 8월 7일부터 전남대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송정리 미군기지 앞 집회, 광산구청 항의집회(장애인성추행문제), 전남대병원 하청집회를 시작으로 전북, 포항(포스코), 부산, 울산, 대구, 평택, 안산, 수원, 의정부, 연세대, 경기, 용산, 광화문을 마치고 마포로 행사를 치르고 내려왔습니다.

36도가 넘는 더위와 아스팔트 열기는 더 뜨거운 동지애로 물리치고 부족한 수면은 조합간부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으로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고마움을 글로 대신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사회현실을 목격하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낄 때가 있었고 투쟁중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연대의 힘을 보이며서 타겟했을 때 보람도 함께 맛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힘은 보잘 것 없지만 다짐과 단결하면 큰 힘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동지여러분! 늦더위가 한창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가내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자가 잘사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투쟁!



서봉원 전남지방본부 조직국장

“육체의 피로는 오히려 정신을 단련”

통일선봉대 참가대원은 자발적으로 참가한 대원들로 투쟁의지가 매우 높았다. 물론 연령층도 30대 전반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였다.

장기투쟁사업장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사업장의 투쟁지원 역할이 현장의 동지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연대단체와 투쟁사업장을 지원하고 방문하면서 동지들의 연대감,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 실감할 수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집회, 그리고 경찰과의 몸싸움, 무더운 날씨의 피로를 누적시켰고 눈꺼풀은 대낮에도 반쯤 풀렸다. 여기에 긴박하게 이어지는 투쟁상황이 심적 정신타스트를 주어 이탈에 대한 충동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보면 다시는 못해볼 투쟁현장의 좋은 경험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KT투쟁의 현장과 비교해보면 몇일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선봉대 일정이었다. 향후 통일선봉대 참가자를 모집할 때 분명한 목적의식과 투쟁의지가 있는 사람이 참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8박9일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동지애로 잘 견뎌낸 KT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유정 충북지방본부 조직국장

민주노총 규약 제14조, 15조에 의거 년도 임시대의원대회(제38차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2006년 8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준호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 일시: 2006년 9월 19일(화) 14시
- 장소: 미정(추후공지)
- 안건: 안건1. 2005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 건
안건2. 2006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건
안건3.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
안건4. 진보진영 총단체 건
안건5. 기타안건

본교섭



17일
사측의 어처구니 없는 인건 상승요구
결국 사측안 철회 조합안 모두 상정

■노측: 사측의 설명은 구체성도 떨어지며 목적사항도 명시돼 있지 않다.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듯이 사측 또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서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단체교섭 안전으로 보기 어려워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측: 회사입금 요구안에 대해 안전상정을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 임금인상 요구안은 회사 경영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수정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생활안정대부제도 도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약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연금저축가입, 복지기금출연, 해고자 전원복지, KT그룹복지회관 건립 기금 출연 요구는 안전철회를 요구합니다.

■노측: 단체교섭은 서로의 목적사항을 가지고 교섭하는 자리.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듯이 사측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노동조합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회의의 기본 상식 아닌가?

□사측: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인상을 그동안 해왔다. 매출성장율과 연계하여 성장과 분배를 정하자. 또한 일자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에 반영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준고령자의 임금을 조정하자.

IMF이후 매년 200명정도 신규인력 총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주력군이다. 회사에서 일과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를 만들어 보상하자는 것이다.

■노측: 노동조합은 3만 8천을 배제하고 2000년 이후의 입사지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수체계를 만드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우수인력 영입을 자주 말하는데 KT가 우수인력을 유지하

지 못하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경영진들이 인재관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측: 현장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임금보다도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고용불안을 마치 회사가 조정해온 것처럼 말하는데 매년 관성적으로 임금을 올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현상이 불안하다.

24일
휴일수당미지급, 상품판매 만연
책임있는 경영진의 자세 요구

■노측: 현장에 만연되고 있는 고용불안이 조합원들에 의해 만들어졌나? 경영위기, 고용불안 조장은 경영진들이 해왔다. 올 봄 혁신기획팀의 이름으로 고용불안을 조정하는 문서가 헌업으로 내려갔고 지금도 명퇴를 강요하는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 전화를 수차례 받는다. 이것이 과연 상생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고용불안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하라.

격렬한 논쟁 끝에 상정안건이 확정됐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인상 ▲연금저축 가입은 수정 없이 상정했으며 ▲복지기금 출연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약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해고자 전원복지는 노사관계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KT그룹복지회관 건립기금 출연은 노사관계 개선협의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당초 사측 안으로 제시됐던 ▲매출성장률과 연계한 임금인상 ▲준고령층에 헌신과 몰입을 위한 고용안정 방안 마련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급 등 개선 ▲우수인재 영입과 육성유지를 위한 보수제도 도입 중 '매출성장률과 연계한 임금인상'을 '매출 및 이익을 연계한 임금인상 및 성과배분'으로 수정 상정에 합의했으며 나머지는 안전은 모두 철회했다.

<▶4면에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21일
복지기금 출연, 합의사항을 지켜라

□사측: 복지기금에는 여유자금이 있다.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보면서 출연해도 될 것 같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 주택자금 대부를 비롯 우리사주주식 매입, 학자금 대부 등등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 도입할 경우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노측: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복지기금의 여유를 떠나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쓸 예산만 감안해 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는다면 향후 복지기금을 어떻게 유지발전 시키겠

는가.

□사측: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두고보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단체보험과 기념품비 94억은 12월말까지는 출연할 수 있겠으나 당기순이익의 5%는 어렵다.

■노측: 복지기금의 출연은 기합대로 일단 이행하고 정말 어렵다면 다음에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서이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조합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최저 6%이상의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기금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주택자금 대부 등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대부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도 될 것이다.

□사측: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이지만 운영의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자격, 조건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도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4면에 계속>

31일
노측, 상품판매, 휴일수당
· 긴급출동비 해결하라
사측, 긴급출동비 부족분
28억 조치취하겠다

■노측: 순수의 1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측은 시장성, 경영악화, 임금체계의 문제라는 3개 논리로 임금실무소위 진행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설명만 했지 노동조합의 요구인 임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나오지 않았다. 경영악화의 주범은 아무도 없고 고령자만 조합원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 지금까지 회사는 조합의 요구에 대해 꾸준히 양보해왔다. 과연 조합은 회사가 어려울 때 무엇을 양보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3%인상과 당기순이익 20%지급은 양보해달라고 한 것이다.

회사가 임금삭감을 요구한 배경은 지금 결정하는 임금이 앞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원가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에 이룬 부분이 있고 노력한 결과가 있음에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노측: 노동조합의 양보를 이야기하는데 99년도 임금인상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만 됐지 사실상 동결이었다. 2000년도 5.5%인상 2001년도 동결, 2002년도 3.5% 2003년도 2%, 2004년 2% 2005년도 3% 인상했다. 당시의 물가인상, 경제성장률의 반토막도 못올랐다. 도대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만 양보라고 생각하는가? 각종 상품들이 상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인보인가? 경영진들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때에도 직원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실무소위원회



21일
상품판매, 명퇴강요 등
헌업 문제 빠른 조치 요구

□사측: 그동안 보수제도에 대한 논의 구조가 없었다. 회사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시스템은 인사와 보수시스템인데 민영화 이후 인사시스템의 변화는 있었으나 보수시스템의 변화는 없었다. 경영환경에 맞춰 보수시스템도 변화했으면 한다.

■노측: 노동조합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KT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헌업은 지금 비영업부서 상품판매와 명예퇴직 강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무엇을 믿고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겠는가.

□사측: 회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한 효율적 비용집행, 적은 비용지출로 동일한 매출이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5년동안 전체 통신시장의 파이는 커졌지만 KT의 성장은 정체상태이다.

■노측: 회사는 파이의 크기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사원기차나 직원의 사기를 염두해 두지 않고 오로지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특히 효율적인 비용사용이라는 미명아래 휴일수당, 긴급출동비까지 지급하지 않는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사측: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이나 희망퇴직 부여 등은 시정조치하도록 문서를 시달했다.

■노측: 시정조치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부터 신뢰가 쌓여가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개인연금도 8월이면 만기이다. 조합원의 노후보장과 함께 생활수준의 유지 등을 위해 개인연금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99년 이후 입사자는 지금까지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다.

22일
사측의 임금삭감 발언으로
실무교섭 격화

□사측: 개인연금은 지금 경영상황이

어려우니 조금 비켜줬다가 사장이 좋아지면 시행방안을 검토해보자.

■노측: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영상황이 좋다고 이야기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회사가 다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는 식으로 조합원들의 고혈을 짜고 있는데 적어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라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회사가 KT의 주축이라고 밝힌 2000년 이후 입사자는 그동안 연금혜택도 받지 못해왔다.

□사측: 경영악화가 인건비 때문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도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본격 민영화가 시작된 이후 직종과 직무별 임금의 차별화가 돼 있지 않다. KT는 지금 임금을 삭감하던지, 인원을 줄이던지 아니면 직무별 차등 임금을 지급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에 닥쳐있다.

■노측: 회사는 민영화를 시행할 당시 장미빛 환상만을 강조하면서 조합원들을 현혹해왔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가. 지금 사측의 발언요지가 임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인원 감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인가. 명확히 밝혀라.

□사측: 인원감축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하겠다. 회사의 입장은 상황이 어려우니 임금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사측의 영부세 같은 발언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사측: 경영상황이 악화돼 임금삭감까지 요구한 마당에 단일복지로 10년간 5천억이 소모되는 연금저축은 어렵다. 노후 대비를 위한 비금전적 지원책을 마련해 보자. 퇴직후 창업지원이나 재테크, 전직 알선, 건강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노측: 순이익 1조를 내는 회사가 어렵다는 것만 고집하는 것은 난센스다. 개인연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 그동안 지급되던 개인연금이 8월로 종료된다. 이부분에 회사가 조금도 부담하면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측: (임금이 아니라)인적 교육개발 등 미래성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 사기진작도 지속적으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선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노측: 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은 사실상 인상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당기순이익의 배분원칙을 정하지는 것이다. 당초 노동조합은 배분원칙의 기준을 주주 30%, 직원 30%, 미래성장 30%, 사회환원 10%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측은 주주의 가치를 위해 50%이상을 배당에 사용하면서도 직원들의 가치를 인종에 두지도 않았다. 또한 KT는 사회환원 정책에도 직원들의 호주머니에서 1천~2천원 거둬서 생색을 내고 있다. 이제 원칙을 정해야 한다.

□사측: 당기순이익은 주주의 몫이다. 임금은 이미 인건비에 포함이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배당과 투자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노측: 우리가 지금 각종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오고 있다. 직원의 성과는 인정하지 않고 주주의 배만을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인가? 전향적인 사측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29일
직원들에게 고통만 전가하는
경영진은 각성하라

□사측: 주주들은 자기자본금에 대한 이익율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KT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주문이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KT의 인건비 24,849억 원 중 1,200억원의 인건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노측: 인건비를 단순 비용으로 계산해 말하는 경영진의 사고에 분노한다. 시장에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장은 이익이 된다면 100% 임금삭감을 요구할 사람도 아닌가. KT가 망해도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내놓길 원할 것이다.

□사측: 회사자체가 생존해야만 다음을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물가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한다. 그러나 수도, 가스 등의 요금인상은 매년 되는 반면 유독 통신시장만큼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요금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측: 그렇다면 도대체 몇%의 삭감을 요구하는 것인가? 1200억원을 삭감하자는 것인가?

□사측: 한번에 어떻게 1200억원을 삭감하겠는가. 다만 시장의 요구가 그렇다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을 비용의 대상이 아닌 자산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노사관계개선협의회



22일
민주화 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 위해
해고자 전원을 복직하라

■노측: 국가가 한통사태피해자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고 원칙복직까지 권고했다. 이들은 시대적 아픔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권력에 대항하다 그렇게 된만큼 미망회복시켜야 한다.

□사측: 해고자들은 사규위반으로 해고됐다. 민주화 범위와 해고사유는 명백히 다르다.

■노측: 직원들이 다양도로 쓸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본사에는 수영장과 있고 도서관, 헬스장 등 복지시설이 잘돼 있지만 헌업 조합원들이 이용

할수 있는 인접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측: KT가 무엇을 하려면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데 재원문제도 그렇고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 단협에 있는 한 회사는 어길수 없다. 다만 경영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노측: 노사신뢰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본교섭에서도 지적했듯이 요즘 헌업은 명예퇴직 압력과 상품판매 강요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노사합의사항도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겠는가.

□사측: 회사는 클린마케팅을 위해 회사방침으로 상품판매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판매와 명예퇴직 강요에 대해서는 확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29일
해고자 전원복직이 노사관계의 척도

□사측은 해고자들이 각종 집회나 언

론을 통해 해사행위를 하고 있다며 개선의 경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잘못도 있다면서 이들의 복지를 통해 상생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30일
복지회관은 단협 사항, 기금출연 통해
이행되지 보여라

복지회관 건립기금 출연과 관련해 사측은 경영상황 악화로 당장 출연은 어렵다 입장을 밝혔다. 노측은 97년에 단체협약으로 신설된 복지회관 건립이 지금까지 아무런 시도조차 없었다면서 기금출연을 통해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은 해고자 전원복직과 과거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의 대사면을 통해 노사화합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이루자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정책의 변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고자 복직이나 대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만기 도래하는 개인연금저축(신탁) 관련 질의 응답

<▶1면에 이어>

금융사별 개인연금상품 차이

질문 : 당시 우리 사원들이 개인연금을 가입한 금융사만 23개회사인데 상품의 차이나 특성이 있나요?

1. 차이점은 크게 은행, 보험사, 투신사에 따라 차이

구분	은행, 우체국	투신사	보험사
상품특성	연금신탁	연금신탁	연금저축
적용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7.5% 최저보증금리
자산운용	채권 등	공사채, 주식	채권 등
부가서비스	주택/생활안정 자금 저리대출 신용/약관대출	가계자금 대출 채테크 상담 신용/약관대출	재해사망 재해상해보장 신용/약관대출
납입연장여부 (10년후 계속불입)	가능	가능	불가능
일시환급금 (119회기준)	1,500만원	1,800~1,900만원	1,550만원

가 있습니다

(위내용은 매월 10만원씩 119회 불입 기준이며 동일 금융사에 가입했다더라도 사원별 계약조건과, 가입/연금개시연령, 보장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가서비스 등을 감안시 단순히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

2. 보험사의 경우 일단 연금개시연령까지 7.5% 수익율을 보장해 줌으로 현금리 수준(약 4.7%) 및 향후 예상금리 보다 좋은 조건이며 부가서비스로 대다수 사원이 상해보장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

- 재해사망 등 주보험 보장이 제1보험기간(연금개시전)까지 유지되는 등 보험사별, 조합원 개인별 가입계약 형태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음으로 본인에 확인 필요

3. 은행, 우체국은 변동금리 적용과 그간 누적된 금액에 대해 매년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금리하락 상황에서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금리와 대등하거나 낮을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현재보다 다소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4. 투신사의 경우 공사채 및 주식투자 등 자산운용으로 높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면에 손실 등의 위험도 높은 상품임(High Risk, High Return) 현재 높은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다면 일단 Taking(일시환급) 하거나 안전한 자산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질문 : 연금으로 받는게 유리한지 연금 개시전에 일시금으로 환급

받는게 유리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나 조언은 없는지?

1. 보험사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됨

- 현 금리보다 높은 7.5% 확정금리, 재해보장 등 보험기능

2. 은행이나 투신사의 경우는 앞페이지 (만기시 확인사항)과 (금융사별 개인연금 차이)를 참고하고, 금융사 담당자의 컨설팅 등을 통해 본인이 판단,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금리와 운용수익률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

납입연장 가능여부

질문 : 현재까지 불입한 개인연금으로는 노후보장이 미흡할 것 같고 연말소득공제 혜택도 받기위해 현재 개인연금저축을 회사가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계속 본인부담으로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1. 보험사에 가입한 분들은 만기가 정해진 개인연금저축으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계속 연금저축납입 등 연장 불가 (일부 보험사는 자체에서 가능하다고도 하니 사원들이 직접 보험사에 확인 필요)

2. 은행/투신사의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저축신탁으로 희망시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을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연장이 유리한 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금으로 환급받고자 할 때

질문 : 노후에 받는 연금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 일시금으로 환급받아 주택자금 구입비에 보태거나 다른 고수익펀드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1. 해당 금융사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해지 신청

- 가급적 연금수령보다 낫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권장

2. 금융기관에서 분사 담당에게 해지해 드려도 좋은지 여부를 문의하게 되며 분사담당이 직접 본인과 통화하여 확인해 주면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환급전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서 일시환급받게 되면 세후 환급액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문의해 보시고 결정

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 후 재해사망 또는 재해상해를 당했는데...

질문 : 보험사에 개인연금을 가입했는데 그간 재해장해(또는 재해사망, 입원의료비 등)를 당했는데 오래전 일이라 그런 재해 보장

이 있는줄 몰랐음. 청구서류가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라도 청구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1. 우선 개인연금은 사적 연금이기에 때문에 가입 개인별 본인에게 보험증권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관중인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기한은 보험사, 계약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연금개시 연령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찾아 어렵다면 직접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특히 산재나 암 등 질병, 장기 입원의료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보험사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한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청구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한 우리회사 사원들에게 수역월(10억이내)이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 인적사항은 확보 불가)

그 간 개인연금의 혜택

질문 : 그간 개인연금으로 받은 혜택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우선 지원 기간동안 매년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120만원 불입한 경우 48만원 소득공제

2. 퇴직후 노후연금(일시금으로 수령시 약 1,500~2,000만원의 목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사의 운용수익률, 사원 특성에 따라 매월 10~30만원의 연금을 가입금융사와 약정한 연금 지급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입 금융사의 부가서비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 보험사의 경우 재해사망, 재해상해, 질병, 의료비 등

- 은행의 경우 저리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 투신사의 경우 채테크 정보 등

* 위 내용은 모든 보험사, 은행, 투신사에 공통되는 사항은 아니며 대체로 금융사별로 위 부가서비스 중 선별적으로 부가서비스 제공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

- 조합원 개인별 가입하신 보험증권 및 약관을 참고
- 해당 금융사 인터넷이나 상담센터에 문의

KT서브마린노조 결성

KT서브마린 노동조합이 8월 9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IT연맹에 가입을 했다. KT서브마린은 해저 통신 및 전력케이블을 구축하는 기업으로서 조합가입 대상은 37명이다.

설립총회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홍창화 동지는 '그동안 묵묵히 일만 해오던 KT서브마린 직원들에게 이에 합당한 대우를 회사가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 노동조합이 일할맛나는 신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고, IT연맹 3만5천여 동지와 함께 연대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KT서브마린 노동조합은 연맹의 13번째 노동조합이 되었다.

인도 노사정 대표 노동조합 방문

23일 인도 노사정대표가 노동조합을 방문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인도는 12~15% 정도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93%가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어 규약이 어렵고 조직화에도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선산업의 비전과 KT노동조합의 현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지재식위원장은 "현재 2006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1주일에 한번 본교섭과 매일 실무교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유선산업에서 유무선 통합, IP-TV 등 융합서비스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대표자들은 "인도의 경우 3년, 5년, 10년 등의 단위로 임금협상이 이뤄진다"면서 "기업뿐만아니라 정부 및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넘게 협상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노사정대표자들은 다음 일정을 위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났다.

커리어디자인센터 운영

창업, 재취업, 재무컨설팅, 개인성향진단 등

노동조합은 그동안 조합원의 체계적인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회사와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커리어디자인

센터 운영을 통해 재직자의 자기개발과 퇴직사우들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가. CDC 개설 및 장소

- 개설일 : 2006. 9.1
- 장 소 : 분당 본사사옥 2층(국민은행 위층)

나. 운영형태

- 운영시간 : 09:00 ~ 18:00
- 상담방법 - 대면, 전화, On-Line
- 접수 및 상담
 - 접수 : Life Plan 사이트에 상담 예약 접수(www.ktlifeplan.com)
 - 문의전화 : 080-030-2080
 - 상담방법 및 대상

상담분야	본사 근무직원	기타지역 근무직원	대상
창업	CDC 내방	CDC 내방, 방문, On-Line	퇴직(예정)자 및 재직자의 배우자
재취업	CDC 내방	CDC 내방, On-Line	퇴직예정자
생애설계 분야	재무컨설팅	CDC 내방	방문 재직자
	개인성향진단	CDC 내방	CDC 내방, On-Line 재직자
	커리어상담	CDC 내방	CDC 내방, On-Line 재직자

*생애설계분야의 경우 만45세 이상 신청가능(2006년) - 대상연령 확대여부는 성과분석 후 결정
*생애설계 상담자는 자기혁명III 과정 이수 후 부여되는 30만 포인트 활용
-기 이수자 : 6만점 차감
-미 이수자 : 자기혁명III 과정 이수 시 24만 포인트 부여(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미 경과자(접수일 기준))

다. 분야별 주요 컨설팅 내용

- 창업 분야
 - 창업적성 검사, 아이템 선정,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 점포경영 등
- 재취업 분야
 - 구직 마케팅, 이력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인맥구축, 연봉협상 등
- 생애설계 분야
 - 재무컨설팅 : 재무목표 설정, 재무상품 선정, 계획실행, 사후관리 등
 - 커리어코칭 : Needs분석, 적성분석, 경력개발계획, 개발관리 등
 - 개인성향진단 : 성격유형검사, 대인관계분석, 다면인성검사 등

라. 전문 컨설턴트 배치

- 창업 전문가 : CDC 상주
- 재취업/생애설계분야 전문가 : 필요 시 CDC 상주

마. 상담 규모

- 창업/재취업 분야 제한 없음
- 생애설계 분야 500명(2006년)
 - 기관별 연간 상담인원 20명 제한(2006년 성과분석 후 2007년도 상담규모 결정

본교섭 <▶3면에 이어>

■노측 : 비영업부서 상품판매가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시스템을 만들고 영구고객을 입력해 관리하면서 비영업부서의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이 확대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차출차출 건수를 올려가고 있다. 회사가 눈감고 있었던 것 아닌가.

□사측 : 판매활동을 사외유통망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부서도 판매보다는 고객관리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사내판매 건수가 줄어, let's 010은 2005년 40%대에서 2006년 14.3%로 떨어졌으며 안팎은 2005 80% 이상었는데 올해 50%까지 줄었다. 또한 클린마케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고해달라. 회사도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원치 않은 만큼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노측 : 2004년 6월 상품판매 노사합의를 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문서상으로 엄포 만들뿐 실제적 한번도 징계를 준 적이 없다. 회사가 의지가 있다면 근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 8월까지 실적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기관이 100%가 넘어갔다. 이것은 비영업부서이든 무엇이든 무작위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영업부서 직원들까지 날자별 관리하면서 상품의 건수를 적어놓은 근거서류도 있다.

□사측 : 그 문서는 추경하건데 직원들이 판매할 때 판매비나 포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비영업부서의 판매는 회사가 바라는 바는 아니다. 강제할당에도 반대한다. 2년동안 상품판매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실무교섭에서도 상품판매 이야기 나온바 있는데

만약 회사의 방침과 다른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겠다고 말씀드렸다. 조사 후 노조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노측 : 현업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지난 본교섭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업에서 휴일수당, 긴급출동 보전비가 해결되지 않고 무료 봉사하고 있다. 현재 NSC에서 긴급출동비 예산 배정된 것이 소진된 상황이다. 28억원이던 해결되는데 경영진들은 수수 방관하면서 시정조치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사측 : 최근 들어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북무시스템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다 지급해 왔다. 어떤 과정에서 승인이 안됐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출동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실에서 조치하겠다.

■노측 : 지금까지 사측은 실무교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을 죽이고 있다. 실무교섭에서 경영설명이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한달이라는 시간이 넘고 있다. 매일 본교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 결론을 맺도록 하자.

□사측대표위원 : 사측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임금실무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3면에 이어>

□사측 :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긴급한 용처로 인해 위기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자는 의미이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대부하기 보다는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한편, 현재 복지기금 운용수익은 5.2%정도 된다. 이자율은 시중은행금리와 주택자금 이자율 사이에서 조율돼야 할 것이다.

■노측 :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자금의 이자율이 3.8%인데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이 더 비싸게 받는다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이자율은 동등해야 한다.

□사측 :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출연기로 한 단체보험, 기념품비의 94억원과 복지기금 100억원을 연내에 출연하겠다.

■노측 : 장기적인 복지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기금확충이 절실하다. 650억 전액출연하라.

28일 조합원에게 이자 장사 하지는 것인가

□사측 : 생활안정자금은 자금회전을 등을 감안해 1천만원 한도에서 5년 상환했으면 한다. 또한 한전과 포스코 등이 5% 이자율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행 복지기금의 수익률이 5.2%인 만큼 6%의 이자율이 됐으면 한다.

■노측 : 생활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자고 도입한 대부제도를 현행 주택자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의미가 없다. 사측 제시안은 생색내기엔 지나

않다. 우리 복지기금이 은행에 예탁돼 5%이상의 수익을 받는 역사가 없다. 이보다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이자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사측 : 복지기금 100억과 별도 출연 94억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

■노측 :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은 사측의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사측 복지기금 200억원 및 별도출연 94억원 수정제안

□사측 : 회사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와 관련해 1000만원 한도에서 연 4.5%, 5년 상환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혜금액을 낮게 두고 차츰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측 : 현재 은행에 예탁돼 있는 복지기금도 이자율이 4.5%~4.8% 수준이다. 또한 주택자금 대부 이자율과 달리 이자율을 정할 경우 차별이 발생한다. 노동조합도 수정제안을 하겠다. 조합원들의 상환자율성을 위해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한다.

□사측 : 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 당초 복지기금 출연 100억원과 별도출연분 94억 연내 출연을 수정해 복지기금을 200억원 출연하고 별도출연 94억원을 제안한다.